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
(063-280-7172, 010-9602-1455)
- 담 당 :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보도시점 : 2018년 10월 30일(화)부터

지속 가능한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을 위해 공정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자!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호 존중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광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 위주의 정책 마련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민의 정주권·생활권 침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혐오증, ‘투어리즘포비아(Tourism Phobia)’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전라북도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광 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방향』이라는 이슈브리핑(186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의 선진모델을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관광브랜드를 새로이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 공정무역에 근간을 둔 ‘공정관광(Fair Tourism)’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분배 공정성을 지향하고 관광목적지에서의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민 역시 관광객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 서울북촌한옥마을의 ‘정숙관광’,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등 전국 각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정책과 콘텐츠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관광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도록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전라북도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 사례가 타 시·도에 비하여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현대 관광의 트렌드가 지속 가능성과 상생,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데 높은 관심도를 보임에 따라 전라북도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정립을 위해 공정관광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 이슈브리핑(186호)에서는 공정관광 콘텐츠 확충을 바탕으로 전북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정립을 위해서 ▲전북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인증제 시행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전북 정숙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또한, ▲전북공정관광협의체 구성에 따라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에 대한 부당대우를 근절하고 지역민 또한 관광객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정관광의 선진모델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과거 관광이 골똥 없는 산업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단순한 도구적 수단으로 관광객 위주의 정책에 그쳤다면, 현재는 관광객 외에도 지역과 지역민의 실제적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관광객의 관광경험을 존중하고 지역민의 문화를 보존하는 상호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을 위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한편,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관광브랜드 정립’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다.